

## 계명대 행소박물관,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 개최

'새로운 예술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정신 담아' 주제  
10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서 37점 작품 전시

기사입력 2023-10-21 18:21:45 | 최종수정 2023-10-25 13:26:07 | 강승탁 기자 | [stking12@newdailybiz.co.kr](mailto:stking12@newdailybiz.co.kr)



▲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는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3주년을 기념하여 원로 화백 김양동 석좌교수의 작품 37점을 모아 10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을 개최한다.©계명대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는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3주년을 기념해 원로 화백 김양동 석좌교수의 작품 37점을 모아 10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을 마련했다.

근원 김양동 석좌교수는 전시 작품을 모두 계명대학교에 기증하기로 했고, 철농 이기우 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학들로부터 서예와 전각, 한문, 한국미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계명대학교 서예과 교수와 미술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다.

서예와 전각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및 미술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아미술상, 황조근정훈장, 일중서예상 등을 수상했다.

근원 김양동 교수는 서예와 전각, 그림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하나의 화면에 조화롭게 담아내 새로운 예술 분야를 개척한 원로 예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근원 김양동 교수의 팔순을 맞아 진흙 판에 그림을 새기고 한지로 떠낸, 마치 분청사기와 같이 거친 바탕 위에 신화 이야기와 옛 시인들의 시를 써넣고 가운데에는 민화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그려 넣은 서예와 전각, 그림이 하나로 어우러진 매우 귀한 37점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되는 작품들을 통해 근원 김양동 화백의 새로운 예술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유교·불교·도교를 아우르는 예술 세계를 직접 느껴볼 수 있다.

전시는 무료이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강승탁 기자 ([stking12@newdailybiz.co.kr](mailto:stking12@newdailybiz.co.kr))

---

이 기사 주소: <https://tk.newdaily.co.kr/site/data/html/2023/10/21/2023102100034.html>



HOME > 대학뉴스 > 대학일반

## 계명대 행소박물관,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 열어

이선용 기자 ✉ / 기사작성 : 2023-10-20 14:57:39

10월 18일부터 11월 18일, 37점 작품 전시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개최하고 있는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의 모습. 사진=계명대 제공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을 연다.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3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원로 화백 김양동 석좌교수의 작품 37점을 모아 10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행소박물관 1층에서 개최된다.

근원 김양동 석좌교수는 전시 작품을 모두 계명대에 기증했다.

근원 김양동 교수는 철농 이기우 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학으로부터 서예와 전각, 한문, 한국미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계명대 서예과 교수와 미술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많은 후학을 길러냈다.

또 서예와 전각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및 미술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아미술상, 황조근정훈장, 일중서예상 등을 수상했다.

근원 김양동 교수는 서예와 전각, 그림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하나의 화면에 조화롭게 담아내어 새로운 예술 분야를 개척한 원로 예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한국 고대문화의 뿌리를 끊임없이 탐구하여 '한국 고대문화 원형의 상징과 해석'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근원 김양동 교수의 팔순을 맞이하여 진흙 판에 그림을 새기고 한지로 떠낸, 마치 분청사기와 같이 거친 바탕 위에 신화 이야기와 옛 시인들의 시를 써넣고 가운데에는 민화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그려 넣은 서예와 전각, 그림이 하나로 어우러진 37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저작권자 © 대학저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dhnews.co.kr>]

## 계명대 행소박물관,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 열어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3-10-20 17:33 KRX7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근원김양동 #작품전 #대구시

11월 18일까지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서 37점의 작품 전시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 (사진 = 계명대학교)

(대구=NSP통신) 최병수 기자 =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는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3주년을 기념해 원로 화백 김양동 석좌교수의 작품 37점을 모아 10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을 개최한다.

근원 김양동 석좌교수는 전시 작품을 모두 계명대학교에 기증하기로 했다.

근원 김양동 석좌교수는 철농 이기우 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학들로부터 서예와 전각, 한문,

한국미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계명대학교 서예과 교수와 미술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다.

또한 서예와 전각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및 미술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아미술상, 황조근정훈장, 일중서예상 등을 수상했다.

근원 김양동 교수는 서예와 전각, 그림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하나의 화면에 조화롭게 담아내어 새로운 예술 분야를 개척한 원로 예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 고대문화의 뿌리를 끊임없이 탐구해 '한국 고대문화 원형의 상징과 해석'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연구와 이론을 작품에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근원 김양동 교수의 팔순을 맞이해 진흙 판에 그림을 새기고 한지로 떠낸, 마치 분청사기와 같이 거친 바탕 위에 신화 이야기와 옛 시인들의 시를 써넣고 가운데에는 민화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그려 넣은 서예와 전각, 그림이 하나로 어우러진 매우 귀한 37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의 강림 신화와 함께 나오는 고대 가요 구지가를 재해석한 '천정지령(天精地靈)'과 '고대 무용의 기원', '처용무의도'와 같이 근원 화백이 한국 고대문화의 뿌리를 끊임없이 탐구해 얻은 연구와 이론을 반영한 작품과 한국과 중국의 옛 문인들이 남긴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청서(淸暑)', '증행화촌주인(贈杏花村主人)', '황정야우(黃亭夜雨)'와 같은 작품도 전시된다.

전시되는 작품들을 통해 근원 김양동 화백의 새로운 예술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유교·불교·도교를 아우르는 예술 세계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란다.

전시는 무료이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fundcbs@hanmail.net)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URL : <https://www.nspna.com/news/?mode=view&newsid=663687>

HOME (/) > 뉴스 (/news/articleList.html?sc section code=S1N1) > 대학핫뉴스-일반대 (/news/articleList.html?sc sub section code=S2N2)

## 계명대 행소박물관,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 열어

방완재 | 승인 2023.10.20 16:58

- 계명대 행소박물관, '새로운 예술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정신 담아' 주제로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 열어
- 10월 18일(수)부터 11월 18일(토)까지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서 37점의 작품 전시



계명대 행소박물관에서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을 10월 18일(수)부터 11월 18일(토)까지 개최한다.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는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3주년을 기념하여 원로 화백 김양동 석좌교수의 작품 37점을 모아 10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원 김양동 석좌교수는 전시 작품을 모두 계명대학교에 기증하기로 하였다.

근원 김양동 석좌교수는 철농 이기우 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학들로부터 서예와 전각, 한문, 한국미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계명대학교 서예과 교수와 미술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다. 또한 서예와 전각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및 미술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아미술상, 황조근정훈장, 일중서예상 등을 수상하였다.

근원 김양동 교수는 서예와 전각, 그림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하나의 화면에 조화롭게 담아내어 새로운 예술 분야를 개척한 원로 예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 고대문화의 뿌리를 끊임없이 탐구하여 『한국 고대문화 원형의 상징과 해석』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와 이론을 작품에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근원 김양동 교수의 팔순을 맞이하여 진흙 판에 그림을 새기고 한지로 떠낸, 마치 분청사기와 같이 거친 바탕 위에 신화 이야기와 옛 시인들의 시를 써넣고 가운데에는 민화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그려 넣은 서예와 전각, 그림이 하나로 어우러진 매우 귀한 37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의 강림 신화와 함께 나오는 고대 가요 구지가(龜旨歌)를 재해석한 <천정지령(天精地靈)>과 <고대 무용의 기원>, <처용무의도>와 같이 근원 화백이 한국 고대문화의 뿌리를 끊임없이 탐구하여 얻은 연구와 이론을 반영한 작품과 한국과 중국의 옛 문인들이 남긴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청서(淸暑)>, <증행화촌주인(贈杏花村主人)>, <황정야우(黃亭夜雨)>와 같은 작품도 전시된다.

전시되는 작품들을 통해 근원 김양동 화백의 새로운 예술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유교·불교·도교를 아우르는 예술 세계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란다.

전시는 무료이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053)580-6992~3)으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완재

# 계명대 행소박물관, 새로운 예술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김양동 작품전 열어

⌘ 백운용 기자 | ⓒ 승인 2023.10.22 21:28



사진제공=계명대학교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 새로운 예술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개혁정신 담아를 주제로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 열어 10월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서 37점의 작품을 전시한다"고 말했다.

계명대학교에 따르면,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3주년을 기념하여 원로 화백 김양동 석좌교수의 작품 37점을 모아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원 김양동 석좌교수는 전시 작품을 모두 계명대학교에 기증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백운용 기자** paekting@naver.com

---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계명대 행소박물관,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 열어..내달 18일까지 37점 작품 전시

박종률 기자 | 승인 2023.10.20 16:18

[대구=뉴스프리존]박종률 기자=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3주년을 기념해 원로 화백 김양동 석좌교수의 작품 37점을 모아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계명대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서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이 열리고 있다.(사진=계명대)

근원 김양동 석좌교수는 전시 작품을 모두 계명대에 기증하기로 했다.

근원 김양동 석좌교수는 철농 이기우 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학들로부터 서예와 전각, 한문, 한국미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계명대 서예과 교수와 미술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다.

또한 서예와 전각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및 미술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아미술상, 황조근정훈장, 일중서예상 등을 수상했다.

근원 김양동 교수는 서예와 전각, 그림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하나의 화면에 조화롭게 담아내어 새로운 예술 분야를 개척한 원로 예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계명대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서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이 열리고 있다.(사진=계명대)

또한 한국 고대문화의 뿌리를 끊임없이 탐구해 '한국 고대문화 원형의 상징과 해석'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연구와 이론을 작품에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근원 김양동 교수의 팔순을 맞이해 진흙 판에 그림을 새기고 한지로 떠낸, 마치 분청사기와 같이 거친 바탕 위에 신화 이야기와 옛 시인들의 시를 써넣고 가운데에는 민화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그려 넣은 서예와 전각, 그림이 하나로 어우러진 매우 귀한 37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의 강림 신화와 함께 나오는 고대 가요 구지가(龜旨歌)를 재해석한 '천정지령(天精地靈)'과 '고대 무용의 기원', '처용무의도'와 같이 근원 화백이 한국 고대문화의 뿌리를 끊임없이 탐구해 얻은 연구와 이론을 반영한 작품과 한국과 중국의 옛 문인들이 남긴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청서(淸暑)', '증행화촌주인(贈杏花村主人)', '황정야우(黃亭夜雨)'와 같은 작품도 전시된다.

전시는 무료이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박종률 기자** jrpark69@naver.com

---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계명대 행소박물관,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 열어



사진제공 | 계명대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3주년을 기념해 원로 화백 김양동 석좌교수의 작품 37점을 모아 11월 18일까지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근원 김양동 석좌교수는 전시 작품을 모두 계명대학교에 기증하기로 했다.

김 교수는 철농 이기우 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학들로부터 서예와 전각, 한문, 한국미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계명대 서예과 교수와 미술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다. 또한 서예와 전각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및 미술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아미술상, 황조근정훈장, 일중서예상 등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서예와 전각, 그림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하나의 화면에 조화롭게 담아내 새로운 예술 분야를 개척한 원로 예술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 고대문화의 뿌리를 끊임없이 탐구해 ‘한국 고대문화 원형의 상징과 해석’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연구와 이론을 작품에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김 교수의 팔순을 맞아해 진흙 판에 그림을 새기고 한지로 떠낸, 마치 분청사기와 같

이 거친 바탕 위에 신화 이야기와 옛 시인들의 시를 써넣고 가운데에는 민화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그려 넣은 서예와 전각, 그림이 하나로 어우러진 매우 귀한 37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의 강림 신화와 함께 나오는 고대 가요 구지가(龜旨歌)를 재해석한 ‘천정지령(天精地靈)’과 ‘고대 무용의 기원’, ‘처용무의도’와 같이 김 교수가 한국 고대문화의 뿌리를 끊임없이 탐구해 얻은 연구와 이론을 반영한 작품과 한국, 중국의 옛 문인들이 남긴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청서(淸暑)’, ‘증행화촌주인(贈杏花村主人)’, ‘황정야우(黃亭夜雨)’와 같은 작품도 전시된다.

전시는 무료이며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에 문의하면 된다.

대구 |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 계명대 행소박물관,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

✎ 이정환 기자 | ⓒ 승인 2023.10.20 17:35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서



관람객이 전시 작품을 보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이정환 기자]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는 계명시민교육원 개원 3주년을 기념해 원로 화백 김양동 석좌교수의 작품 37점을 모아 11월 18일까지 ‘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원 김양동 석좌교수는 전시 작품을 모두 계명대에 기증하기로했다.

근원 김양동 석좌교수는 철농 이기우 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학들로부터 서예와 전각, 한문, 한국미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계명대 서예과 교수와 미술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다. 또한 서예와 전각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및 미술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아미술상, 황조근정훈장, 일중서예상 등을 수상했다.



작품명 '전정지령'

근원 김양동 교수는 서예와 전각, 그림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하나의 화면에 조화롭게 담아내어 새로운 예술 분야를 개척한 원로 예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 고대 문화의 뿌리를 끊임없이 탐구해 《한국 고대문화 원형의 상징과 해석》이라는 책을 저술했으며, 이러한 연구와 이론을 작품에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근원 김양동 교수의 팔순을 맞이하여 진흙 판에 그림을 새기고 한지로 떠낸, 마치 분청사기와 같이 거친 바탕 위에 신화 이야기와 옛 시인들의 시를 써넣고 가운데에는 민화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그려 넣은 서예와 전각, 그림이 하나로 어우러진 매우 귀한 37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는 무료이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이정환 기자** [leejh@unn.net](mailto:leejh@unn.net)

---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